

### 학습목표

1. 화법의 뜻을 확인 할 수 있다.
2. 말하는 방식을 정리하며 지문에 반응할 수 있다.
3. 화법에는 화법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 Theme 7. 화작) 화법 문제 해결

출처: 2023학년도 9월 모평 시험 35~37번 문제

#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 [해설 자료]

### 1. 지문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취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  
 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  
 있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 2. 단어 확인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불 관 的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쳐 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力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정(同情)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 4. 학습목표

학습목표

-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
-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 [지문분석]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CHECK 1 화법이란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모든 방법. 보통 '스피치(Speech)'라고 한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화제(話題)가 뚜렷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말소리의 음질, 말의 속도와 강약, 말에 따르는 몸짓과 태도,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며, 청자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분위기,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된다. 화법의 기능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전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구분된다.

청자가 모르는 사실이나 새로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기능을 설명기능이라 하고, 상대를 설득하여 어떤 사실을 믿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설득기능이라 하며, 이야기 상대와의 친교적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환담기능이라 한다. 기타 정적(靜的)인 상황을 기술하는 묘사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건을 기술하는 서사(敍事)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환기(喚氣)의 기능이라고도 한다. 담화는 일정한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기의 가장 평범한 형식으로, 회담·대화·좌담 등의 방법이 있다. 연설은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말하기의 형식으로 보고연설·설득연설·환담연설 등이 있다. 토론은 어떤 제안이나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논거를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말하기의 형식이며, 토의는 다수의 참가자가 협력하여서 문제해결에 이르려고 하는 형식이다. 토의에는 심포지엄(symposium)·포럼(forum)·패널(panel) 등의 방법이 있다.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다시 말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과정에서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자가 말하는 상황 역시 확인해야 한다.

## [1문단]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개뿔 속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발견했다는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인류를 살리는 식물에 관한 얘기였죠. 이런 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에서 발표자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를 할 때, 말하는 방식, 다시 말해 화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 CHECK 2 화법은 정리하자!

다시 말하지만, 화법은 말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눈으로 확인가능하며, 특이한 화법의 경우 표시하거나 정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목적이고 방법이 화법이라면, 방법을 정리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문단에서 화법을 정리하면,

- 과거에 정리된 내용을 환기하며 시작한다.
- 질문은 통해 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 청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행한다.
- 지구상에 식물이 사라진 상황을 가정한다.

이와 같이 화법을 정리하면 글을 읽어내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닌 한 화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수렴되며, 익숙해지면 오히려 글을 빠르게 읽어내려 가는데 도움을 준다.

(㉠화면을 보여 주며)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면을 보여 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식물 중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 ㉡의 차이: 관심 집단이 다르다

- ㄱ은 '나무 종'으로 관심 집단을 설정했으며
  - ㄴ은 '식물 종'으로 관심 집단을 설정했다.
- 즉, 관심 집단의 범위가 다르다.

**화법정리**

- 화면을 제시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 조사를 통해 신뢰를 주려고 한다. 다만 조사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그래서 식물을 품고 있는 씨앗, 즉 종자의 보존은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는 그 종자 보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발표주제가 제시되었다. '종자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 기존의 종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화법정리**

- 핵심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제시했다.

[2문단]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종자와 금고를 합친 말인데, 용어가 어려우니 종자 금고라고 할게요. 종자 금고는 기후 변화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종자 영구 보관 시설입니다.

**내용정리**

시드볼트 = 종자 + 금고  
 시드볼트의 목적: 기후 변화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함

**화법정리**

- 어려운 단어(시드볼트) 대신에 쉬운 표현(종자금고)을 사용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 볼게요. 종자 금고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아, 정답자가 없네요. 놀라지 마세요.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단 두 나라,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화법정리**

-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유도했다.
- 비언어적 표현(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을 사용했다.
-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WORD 1 비언어적 표현**

말이 아니라 표정, 몸짓, 시선, 자세 등을 적절하게 쓰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언어'란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상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 어울리는 몸짓과 표정, 자세 등을 알맞게 조절해야 하지요.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을 살펴볼까요?

떡을 달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와 두려워하는 아주머니  
 떡을 달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와 두려워하는 아주머니  
 \* 호랑이: 무서운 표정으로 다리를 세워 들며  
 \* 아주머니: 겁먹은 표정으로 온몸을 벌벌 떨며  
 →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모습과 두려움에 떠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함.

(출처: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사전)

### [3문단]

---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데 일조하고자 지은 우리나라 종자 금고는 경북 봉화군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종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 저장고 내부는 종자의 발아를 억제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화법정리

- 화면을 통해 내용이해를 돕고 있다.

#### 내용정리

- 4천 종 보관 = 국내 + 해외

#### 종자를 보존하는 방법

-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
- 종자의 발아를 억제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함

---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데 식물의 멸종이나 자생지 파괴 등을 대비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목적: 멸종이나 자생지 파괴 등을 대비 식물 종자의 보존 목적에 맞춰서, 당연히 특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자를 반출하지 않을 것이다.

### [4문단]

---

종자를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살아 있는 유산인 씨앗.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우리나라의 종자 금고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단: 종자를 지키는 일

목적: 미래를 지키는 일

: 미래를 지키는 데, 종자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해, 미래를 지키는 일을 위한 수단은 많지만, 그 수단 중 하나인 '종자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을 위한 수단: 종자 은행

: 종자 은행의 의의를 말함

---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궁금한 점을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

#### 발화방법

- 발표를 마무리하며, 질문을 받으며 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35.④ 36.④ 37.③

[35번 문제]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하기 방식, 다시 말해 화법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다.

CHECK 3 화법에는 효과가 있다.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 ①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1번 선지에서 활용한 화법은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한다는 효과를 말한다.

2번 선지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화법을 적용했다. 효과는 ‘청중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지가 구성되는 것은, 화법에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목적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의미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효과들이 있어야, 화자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 ‘화법과 화법의 효과’에 맞춰 선지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   | 화법                  | 화법의 효과         |
|---|---------------------|----------------|
| ① |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         |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함  |
| ② | 비언어적 표현             |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함 |
| ③ |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음 | 상호 작용하고 있음     |
| ④ |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함 | 청중의 주의를 환기함    |

1번 선지,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2번 선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3번 선지,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지만,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4번 선지, 발표자는 발표 도입부에서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발견했다는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하시나요?’라고 하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참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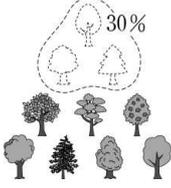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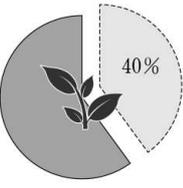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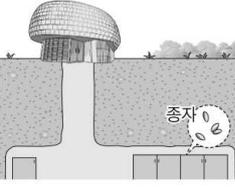
|   | 화법                  | 화법의 효과         |
|---|---------------------|----------------|
| ① |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         |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함  |
| ② | 비언어적 표현             |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함 |
| ③ |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음 | 상호 작용하고 있음     |
| ④ |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함 | 청중의 주의를 환기함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선지는 선후관계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논리 구성이 다른 선지를 섞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논리 구성만으로 선지를 구성하면 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청중에게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거짓이다.

[36번 문제]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p>〈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p>  <p>- 국제 식물원 보존 연맹(2021) -</p> | <p>〈멸종이 우려되는 식물〉</p>  <p>- 영국 왕립 식물원(2020) -</p> | <p>〈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p>  |
| [화면 1]  | [화면 2]  | [화면 3]   |

- 화면1: 2021년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 종’ 비율
- 화면2: 2020년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식물 종’ 비율
- 화면3: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 단면도

① [화면 1]은 매년 나무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해당 자료는 2021년에 고정된 자료다. 시간 상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짓이다.

② [화면1]은 멸종 위기의 나무 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하자.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 종에 대한 비율이므로, 이는 보존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③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 종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모든 국내의 생물과 전 세계의 식물은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④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화면을 보여 주며)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면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로 지하에 종자가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화면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화면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위치별 종자 발아상태 변화, 즉 어떤 원인에 따른 위치라는 결과 변화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37번 문제]

다음은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청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A]

발표자: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청자의 질문

: 청자는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발문 분석

: 청자가 할 수 없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 발표자는 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답변이 발표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 청자가 할 수 없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이미 주어진 지문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다면 해당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발표자가 이미 해당 내용이 발표에 없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해당 발표는 '식물의 보존 방법'에 관해서 다룬 것이다. 갑자기 '동물이 자손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해당 발표자는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① 종자 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 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발표자는 종자 금고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였으나 두 나라의 종자 금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자 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 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②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중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③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 발표자가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A]에는 발표자가 발표 중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자의 질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종자 금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중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라고 하였으므로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이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보관 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적정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적정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⑤ 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

발표자는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반출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